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 및 영향 요인

이영란¹ · 김경미² · 최소은³

서울여자간호대학교¹, 세명대학교 간호학과², 목포대학교 간호학과³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Lee, Young-Ran¹ · Kim, Kyung Mi² · Choi, So-Eun³

¹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²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Jecheon

³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Mokpo,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wareness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questionnaire survey with a total of 1,244 college students. The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 to December 20, 2011. **Results:** The average level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students from the Youngnam province was higher than those of other province. The average level of the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egalitarianism among those students who were majoring in healthcare sciences was higher than that among those who were majoring in other subjects than arts and sports sciences.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recognition of gender egalitarianism were genders and sexual experiences.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recognition of sexual harassment were genders and ages.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d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gender egalitarianism and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with them.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developing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for college students.

Key Words: Awareness, Students, Sexual harassm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초기 성인기에 속하고, 대학시절은 생애 중 가장 다양하고 의미 있는 관계형성의 시기이며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업을 갖는다. 초기성인기는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고,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Kim, 2005;

Lee, 2005). 정체성이 자신에 대한 통합된 개념으로써 개인의 이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을 통합하는 자아의 기능이고, 최근 성역할의 혼돈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성 정체성과 성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 정체성은 성 차이에 대한 내재화, 자신의 성과의 동일시 그리고 두 성이 협력하여 재생산 기능을 갖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성 정체성과 성의식의 형성은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성에 대한 현실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시기의

주요어: 인식, 학생, 성희롱

Corresponding author: Kim, Kyung Mi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65 Semyung-ro, Jecheon 390-711, Korea.
Tel: +82-43-649-1356, Fax: +82-43-649-7082, E-mail: icpkim@semyung.ac.kr

투고일: 2012년 7월 1일 /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5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대학 입학 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대학생이 되어야 자유로운 이성교제가 허용되는 분위기로 ‘이성과 이성교제’를 대학시절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Moon, 1997; Son, 1992; Son & Chun, 2005). 대학생의 성행동 경험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학생의 경우 성경험이 40% 이상, 여학생의 경우 8.1%이며 4명 중 1명이 피임을 하고 있고, 대학생 중 74.0%가 키스와 포옹의 성적접촉을 하고 있다(Ko, 2009; Son & Chun, 2005).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남녀 간의 성에 관한 태도와 가치관과 같은 개념의 차이는 성적 접촉이나 행위에 있어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Lee & Kim, 2009).

성에 관한 주요 개념이며 성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며 문제인 성희롱과 성평등의 정의는 객관적 요건보다 주관적인 심리상태에 의해 정의된다(Fitzgerald, 1996; Ha, 2007; Kim, 2001).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정서상으로 성희롱과 성불평등 행동은 ‘환영 받지 못하는 성적행태’라고 간주되고, 성희롱과 성불평등 인식은 생화학적 반응이나 동물적 본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의 태도, 가치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통제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성희롱과 성불평등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쟁점화되는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 대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 초기성인기 여성의 교육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학 내 여학생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다른 측면에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문제와 성희롱 및 성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Moon, 2009). 성희롱과 성불평등은 가부장적 문화, 남녀의 권력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 직결되고, 피해자에게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Lee, 2002), 헌법상의 인간존엄 및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다(Pyo, 2008). 사회와 성과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성희롱과 성불평등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개념정립은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거나 참으면 되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다. 성희롱과 성불평등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대학과 직장에서 흔히 발생됨을 볼 때 대학생의 성희롱과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차세대 직장 내 노동인력으로 대체될 남녀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의식에 관한 비교조사를 함으로써 대학생의 건강한 성정체성 확립과 대학문화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

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 의식수준을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성희롱에 관한 인식을 비교한다.
-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을 비교한다.
-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다.
-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의식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성희롱 인식

성희롱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과 관련된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고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이다(Moon, 2009). 본 연구에서 성희롱에 관한 인식이라 함은 개인이 갖고 있는 성 정체성과 태도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인 인지이다. ‘성희롱 인식’ 정도라 함은 Im (1999)과 Lee (2002)가 성희롱 인식조사용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측정된 점수이다. 성희롱의 인식에는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의 원인, 성희롱의 가해자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2) 성평등 의식

남녀에게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이다(Kim & Jung, 1999). 본 연구에서 ‘성평등 의식’이라 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로 측정된 점수로써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과 직업생활 영역에서의 평등 의식에 관한 측정 점수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희롱 및 성평등에 관한 인식정도와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소재의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대학(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교육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재학생이다. 전국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중부권(강원, 대전, 충남, 충북), 영남권(부산, 대구, 경북, 경남)과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 4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각 광역별로 재학생수를 파악하여 각 지역별로 비율에 따라 할당표집 추출을 하였다. 교육통계서비스(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의 비율은 수도권이 전체 대학생 중 39.3%, 강원·중부권은 20.8%, 영남권은 26.8%, 호남권은 13.1%였으며 남녀 비율은 각각 50.7%와 49.3%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추출은 할당표출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독립변수 15개, 유의수준 .05, small effect size .02, 검정력 .9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은 1,192명이었다.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대상자수를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였을 때, 수도권은 469명, 영남권은 320명, 강원·중부권은 248명, 호남권은 155명이었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수도권은 489 (39.3%)명, 영남권은 310명(24.9%), 강원·중부권은 259 (20.8%)명, 호남권은 186명(15.0%)이었다. 학제에 따르면 4년제가 788명(63.3%)이었고 전문대학이 456명(36.7%)이었다.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1,244명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는 2011년 11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구자와 설문조사원에 의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원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의 설문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답변이 가능하도록 훈련된 자로서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이다. 수도권, 강원 및 중부권, 영남권과 호남권의 대학을 편의추출한 후, 설문조사원이 대학의 학생들에게 구두 및 포스터를 이용하여 본 연구를 광고 하였다. 대상자의 모집조건, 자료수집의 절차, 연구참여의 이점과 위험요인 및 연구목적에 광고 내용에 포함되었으며, 설문조사원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의 중도 거부가능, 개인정보의 보호, 설문소

요시간 등에 관하여 대상자에게 사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선행연구(Im, 1999; Kim & Jung, 1999; Lee, 2002)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으며, 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16문항), 성희롱 인식(36문항), 성희롱에 대한 반응(4문항), 성평등 의식(40문항)의 4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 성희롱 인식

성희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Im (1999)과 Lee (2002)의 성희롱 인식조사용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3명의 모성간호학 교수와 4명의 성교육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성희롱의 개념(6문항), 성희롱의 유형(12문항), 성희롱 원인(6문항), 성희롱의 가해자(7문항), 성희롱 예방교육(5문항)으로 총 36문항의 자기기입식 설문지이다.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4개의 역산 문항을 갖고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Im, 1999; Lee, 2002)의 설문 도구는 신뢰도를 알 수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 성평등 의식

성평등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지(KGES)'였다 (Kim & Jung, 1999). 이 도구는 남녀의 능력과 성격, 사회적 권리, 자유, 평등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한국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생활,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설문지이다. 총 40문항으로 영역별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 16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 당시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가정생활이 Cronbach's $\alpha = .91$, 교육생활이 Cronbach's $\alpha = .91$, 사회문화생활이 Cronbach's $\alpha = .87$, 직업생활이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가정생활이 Cronbach's $\alpha = .76$, 교육생활이 Cronbach's $\alpha = .87$, 사회문화생활이 Cronbach's $\alpha = .73$, 직업생활이 Cronbach's α

=.86이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남녀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의식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시행하였다. 남녀대학생의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의식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희롱에 관한 인식과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시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AS/WIN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성희롱 인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인식

지역별 성희롱 인식정도는 영남 지역이 138.9점으로 서울 134.7점과 호남 134.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4.43, p=.004$).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141.9점으로 남학생의 127.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4.69, p<.001$). 남학생 중 군필자의 성희롱 인식정도가 130.0점으로 군미필자의 123.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96, p<.001$). 전공에 따라서는 의료보건계열의 성희롱 인식정도는 140.3점으로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계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1.02, p<.001$). 학년에 따라서는 3학년과 4학년의 성희롱 인식정도가 1학년과 2학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9.93, p<.001$). 용돈을 31만원에서 4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정도가 138.8점으로 41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대학생의 130.8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3.58, p=.003$). 성표현물을 접하지 않은 학생의 성희롱 인식정도가 138.6점으로 성표현물을 접한 군의 129.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7.74, p<.001$)(Table 1).

2) 성희롱 인식정도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정도는 평균 3.7 ± 0.48 점이었으며, 성희롱의 개념영역이 4.2 ± 0.55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희롱의 예방교육 4.1 ± 0.73 점, 성희롱의 유형 3.9 ± 0.66 점, 성

희롱의 원인 3.3 ± 0.78 점, 성희롱의 가해자는 3.2 ± 0.71 점 순이었다.

3) 성희롱에 대한 반응

성희롱의 피해자가 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꼬집어서 항의하기 힘들어서 알고도 그냥 참는다’로 응답한 경우가 794명(63.8%)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할 때 가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행동을 중지한다’로 응답한 경우가 391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인간관계가 걸끄러워 질까봐서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희롱을 경험하면 어떤 증상을 갖는지에 대해서 중복응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수치심’, ‘당혹스러움’, ‘자존심 손상’, ‘분노’,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2).

2. 성평등 의식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평등 의식 정도

영남 지역의 성평등 의식 정도는 131.8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5.65, p<.001$). 4년제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 정도가 128.5점으로 전문대의 123.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5.51, p<.001$).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성평등 의식정도가 133.4점으로 남학생의 116.1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9.26, p<.001$). 전공에 따라서는 의료보건계열의 성평등 의식 정도는 130.9점으로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 다른 전공계열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4.94, p<.001$). 학년에 따라서는 2학년의 성평등 의식 정도가 123.6점으로, 3학년 128.6점과 4학년 129.8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6.38, p<.001$). 용돈을 1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 정도가 129.1점으로 가장 높았다($F=2.77, p=.017$). 종교가 천주교인 학생의 성평등 의식 정도가 128.9점으로 가장 높았다($F=2.87, p=.035$). 성관계 경험이 없는 군의 성평등 의식 정도가 129.1점으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 군의 121.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7.80, p<.001$). 성표현물을 접하지 않은 학생의 성평등 의식 정도가 129.6점으로 성표현물을 접한군의 118.2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0.37, p<.001$)(Table 3).

Table 1. Awareness Level of Sexual Harass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44)

		n (%)	M±SD	t or F	p
Area	Seoul	489 (39.3)	134.7±17.46 ^a	4.43	.004
	Youngnam province	310 (24.9)	138.9±16.60 ^{ab}		
	Chungchung & Gangwon province	259 (20.8)	136.4±14.79		
	Junra province	186 (15.0)	134.2±21.93 ^b		
School system	4 year course college	788 (63.3)	136.7±16.84	1.59	.113
	Junior college	456 (36.7)	135.0±18.71		
Gender	Male	498 (40.0)	127.3±19.21	14.69	< .001
	Female	746 (60.0)	141.9±13.53		
Military service	Yes	288 (58.7)	130.0±18.23	3.96	< .001
	No	203 (41.3)	123.1±20.00		
Majors	Cultural science	130 (10.5)	129.3±16.48 ^a	21.02	< .001
	Natural science	75 (6.0)	131.5±20.88 ^b		
	Healthcare science	680 (54.7)	140.3±15.98 ^{abcd}		
	Art science	20 (1.6)	135.7±17.42		
	Engineering science	325 (26.1)	131.4±17.37 ^c		
	Other	14 (1.1)	121.0±26.38 ^d		
Grade	Freshmen	491 (37.5)	132.4±18.10 ^{bd}	19.33	< .001
	Sophomore	271 (21.8)	134.6±17.49 ^{ac}		
	Junior	330 (26.5)	140.6±17.25 ^{ab}		
	Senior	152 (12.2)	140.6±12.88 ^{cd}		
Pocket money (won)	≤ 10	79 (7.3)	133.1±19.50	3.58	.003
	11~20	273 (25.0)	136.8±17.10		
	21~30	415 (38.0)	137.1±15.36		
	31~40	170 (15.6)	138.8±14.99 ^a		
	41~50	96 (8.8)	130.8±23.23 ^a		
	≥ 51	58 (5.3)	134.2±22.90		
Religion	None	668 (53.7)	136.5±17.63	0.71	.545
	Buddhism	127 (10.2)	134.1±17.85		
	Catholic	140 (11.3)	136.3±16.84		
	Protestant	299 (24.0)	136.4±16.36		
Relationship experience	Present	441 (35.4)	137.7±17.51 ^a	3.18	.041
	Past	542 (43.6)	134.9±18.02 ^a		
	No experience	261 (21.0)	135.6±16.51		
Sexual relations experience	Yes	419 (33.7)	134.8±18.08	1.83	.067
	No	825 (66.3)	136.7±17.27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Yes	159 (12.8)	137.7±17.04	1.29	.198
	No	1,085 (87.2)	135.8±17.63		
Sexual visuals experience	Yes	343 (27.6)	129.4±19.65	7.74	< .001
	No	901 (72.4)	138.6±16.00		
Frequency of sexual visuals exposure	Once a month	120 (35.6)	129.9±20.94	1.94	.145
	Once a week	110 (32.6)	126.4±15.02		
	More than twice a week	107 (31.8)	131.5±21.34		
Sexual harassment education experiences	Yes	1,096 (88.1)	136.1±17.21	0.46	.645
	No	148 (11.9)	135.3±20.04		
Sexual harassment education	It was helpful	340 (31.2)	137.5±19.13	1.98	.138
	It was so so	470 (43.2)	135.9±16.41		
	It was not helpful	279 (25.6)	134.7±16.75		
Sexual harassment education experiences in college	Yes	250 (20.8)	136.3±20.53	0.34	.734
	No	950 (79.2)	135.9±16.78		
Sexual harassment education experiences in college	It was helpful	72 (28.9)	138.2±21.23	0.85	.428
	It was so so	116 (46.6)	137.0±18.71		
	It was not helpful	61 (24.5)	133.7±22.29		

^{a-d}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2. Response to Sexual Harassment

(N=1,244)

What kind of victim's behavior would be expected after sexual harassment?	n (%)
Ignoring the incident because it is not so obvious	143 (11.5)
Considering that it is a compliment for her clothing or figure	24 (1.9)
Be patient with herself because it is very hard to complain in detail	794 (63.8)
Manage to hear him out in order not to be terrified	34 (2.8)
Ask him to stop	243 (19.5)
Others	6 (0.5)
What kind of attacker's behavior would be expected when a victim of sexual harassment respond to attacker?	n (%)
Keep going on	209 (16.8)
Will be worse	199 (16.0)
Stop doing harassment	391 (31.4)
Stop doing harassment and apologize	239 (19.2)
Getting back to him	198 (15.9)
Others	8 (0.7)
What would be a specific reason for not responding to the sexual harassment?	n [†]
Think that it would be in no use	284
Afraid of losing present relationship	568
Do not know what to do	553
Think it is shameful	440
Does not care at all	17
Think it could be beneficial	18
Afraid of getting disadvantage or revenge	664
There is no evidence to claim	315
Others	3
What kind of symptoms could be expected after sexual harassment?	n [†]
Humiliation	1,184
Embarrassment	1,038
Losing self confidence	1,036
Anger	988
Uneasiness or concern	760
Fearness	837
Sleeplessness	551
Depression	732
Headaches	303
Stomach disorder, nausea, losing appetite	386
Resignation, leave of absence, self drop out	563
Difficulty in relationship	895
Limitation of social activity	881
Others	13

[†] Multiple select.

2) 성평등 의식 정도

대학생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인식정도는 평균 3.1±0.43점이었으며, 교육생활 영역이 3.3±0.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생활 3.2±0.56점, 가정생활 3.1±0.45점, 사회문화생활 2.9±0.45점 순이었다.

3. 성희롱과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먼저 용돈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가변수로 전환하여 각각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인 성별, 나이, 학년, 전공, 의도적인 성표현물을 접한 경험유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성희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성희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나이였다 (Table 4).

2)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먼저 용돈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가변수로 전환하여 각각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3. Gender Egalitarian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Area	Seoul	489 (39.3)	125.0±17.76 ^a	15.65	< .001
	Youngnam province	310 (24.9)	131.8±14.63 ^{abc}		
	Chungchung & Gangwon province	259 (20.8)	126.1±17.01 ^b		
	Junra province	186 (15.0)	122.1±18.23 ^c		
School system	4 year course college	788 (63.3)	128.5±16.54	5.51	< .001
	Junior college	456 (36.7)	123.0±17.88		
Gender	Male	498 (40.0)	116.1±16.54	19.26	< .001
	Female	746 (60.0)	133.4±13.90		
Military service	Yes	288 (58.7)	116.7±16.07	1.02	.308
	No	203 (41.3)	115.2±17.13		
Major field	Cultural science	130 (10.5)	119.6±17.74 ^a	24.94	< .001
	Natural science	75 (6.0)	122.7±21.44 ^b		
	Healthcare science	680 (54.7)	130.9±15.26 ^{abcd}		
	Art science	20 (1.6)	128.8±17.11		
	Engineering science	325 (26.1)	121.5±16.86 ^c		
	Other	14 (1.1)	107.4±20.12 ^d		
Grade	Freshmen	491 (37.5)	125.7±17.87	6.38	< .001
	Sophomore	271 (21.8)	123.6±17.10 ^{ab}		
	Junior	330 (26.5)	128.6±16.60 ^b		
	Senior	152 (12.2)	129.8±15.84 ^a		
Pocket money (10,000 won)	≤ 10	79 (7.3)	129.1±16.92	2.77	.017
	11~20	273 (25.0)	127.9±16.86		
	21~30	415 (38.0)	128.5±16.31		
	31~40	170 (15.6)	125.9±16.79		
	41~50	96 (8.8)	125.3±16.70		
	≥ 51	58 (5.3)	121.0±20.36		
Religion	None	668 (53.7)	127.1±17.44	2.87	.035
	Buddhism	127 (10.2)	126.5±16.68		
	Catholic	140 (11.3)	128.9±16.71		
	Protestant	299 (24.0)	124.3±16.73		
Relationship experience	Present	441 (35.4)	126.6±16.68	2.36	.095
	Past	542 (43.6)	125.5±17.46		
	No experience	261 (21.0)	128.3±17.64		
Sexual relations experience	Yes	419 (33.7)	121.3±17.30	7.80	< .001
	No	825 (66.3)	129.1±16.61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Yes	159 (12.8)	128.5±16.76	1.60	.110
	No	1,085 (87.2)	126.2±17.30		
Sexual visuals experience	Yes	343 (27.6)	118.2±17.87	10.37	< .001
	No	901 (72.4)	129.6±15.91		
Frequency of sexual visuals exposure	Once a month	120 (35.6)	119.3±17.44	2.35	.097
	Once a week	110 (32.6)	115.1±16.13		
	More than twice a week	107 (31.8)	119.8±19.67		
Sexual harassment education experiences	Yes	1,096 (88.1)	126.8±17.25	1.63	.104
	No	148 (11.9)	124.3±17.10		
Sexual harassment education	It was helpful	340 (31.2)	126.5±17.03	0.18	.837
	It was so so	470 (43.2)	127.2±17.00		
	It was not helpful	279 (25.6)	126.7±17.81		
Sexual harassment education experiences in college	Yes	250 (20.8)	125.6±17.53	0.77	.443
	No	950 (79.2)	126.6±17.25		
Sexual harassment education experiences in college	It was helpful	72 (28.9)	124.2±20.24	0.49	.616
	It was so so	116 (46.6)	126.7±16.96		
	It was not helpful	61 (24.5)	125.0±15.20		

^{a-d}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량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인 성별, 나이, 학년, 전공, 성관계 경험유무, 의도적인 성표현물을 접한 경험유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성평등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과 성관계 경험여부였다(Table 4).

4.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인식의 상관관계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인식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46, p<.001$)가 있었으며, 성희롱 인식 하부영역중 성희롱의 가해자와 성평등 인식의 하부영역 중 교육생활, 사회·문화생활, 직업생활을 제외한 다른 하부영역들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5).

출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Lee, Song, & Kim, 2011) 여전히 사회 전반에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 및 분위기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동등한 인격적 기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올바른 성정체성과 성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건전한 성의식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Yoo, Park, & You, 2012).

본 연구에서 성별, 지역, 군입대 경험, 전공, 학년, 용돈, 이성교제 경험, 성표현물 접촉경험에 따라 성희롱 인식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Jung, 2003; Park, Kim, & Kim, 2005)와 유사하게 여학생의 성희롱 인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계열의 학생들이 다른 계열보다 성희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보건계열에 여학생들이 많고 여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결과

논 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고등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진

Table 4. Influencing Factors for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Gender Egalitarianism (N=1,2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β	Partial R ²	Model R ²	F	p
Influencing factors for sexual harassment awareness	Gender (Female)	13.481	.1658	.1658	246.79	< .001
	Age	0.914	.0204	.1862	31.18	< .001
	Intentional experience with SV (no)	1.777	.0015	.1877	2.31	.128
	Major: healthcare science (no)	-1.588	.0014	.1891	2.15	.143
Influencing factors for Gender egalitarianism	Gender (Female)	15.843	.2425	.2425	397.51	< .001
	Sexual relationship experience (no)	1.868	.0030	.2454	4.90	.027
	Intentional experience with SV (no)	1.871	.0017	.2471	2.78	.096

SV=sexual visuals.

Gender: Male=0; Intentional experience with sexual visuals: Yes=0; Major: Healthcare science Yes=0; Sexual relationship experience: Yes=0.

Table 5. Correlation of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Gender Egalitarianism (N=1,244)

Variables	Family life	Education life	Social·cultural life	Job life	Total gender egalitarianism
Concept of sexual harassment	.267 (< .001)	.234 (< .001)	.240 (< .001)	.272 (< .001)	.292 (< .001)
Type of sexual harassment	.351 (< .001)	.343 (< .001)	.324 (< .001)	.396 (< .001)	.408 (< .001)
Cause of sexual harassment	.195 (< .001)	.171 (< .001)	.181 (< .001)	.249 (< .001)	.231 (< .001)
Attacker of sexual harassment	.059 (.035)	-.030 (.179)	-.010 (.645)	.043 (.126)	.015 (.591)
Preventative education of sexual harassment	.161 (< .001)	.197 (< .001)	.112 (< .001)	.159 (< .001)	.182 (< .001)
Total sexual harassment awareness	.314 (< .001)	.277 (< .001)	.261 (< .001)	.3450 (< .001)	.346 (< .001)

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입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성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Kwak, 2007) 군입대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서 성희롱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 1, 2학년보다 3, 4학년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는데 본 연구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성희롱 인식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희롱 교육의 기회가 누적되는 것이 성희롱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군대 생활, 대학 및 사회에서 성희롱 인식에 대한 정보에 노출되는 빈도가 축적됨으로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희롱 인식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포르노 사이트나 음란영화 및 잡지, 음란만화 등을 접하고 있는 대학생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희롱 인식 수준이 낮았는데 이러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접하게 되는 경우 부정적인 성의식을 갖게 되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청소년기부터 음란물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러한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대학생의 경우 성행위나 성희롱, 성폭력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자신들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학생이 되어서도 올바른 성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88.1%였으나 성희롱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 간에 성희롱 인식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희롱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최초의 성희롱 관련 교육과 대학 입학 후 받은 성희롱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 학생은 각각 31.2%와 28.9%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성희롱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성희롱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이루어져 온 성희롱 교육의 실질적 효과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Park, Ha와 Kim (2007)의 보고에 의하면 국내 대학들의 대다수가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수나 직원의 참여율이 학생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도 학생들이 대학에서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는 28.9%에 불과하여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Ha (2010)의 연구에서도 대학 내에서 일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정서가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강제성과 수동적 교육이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교수와 직원은 물론 대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교육 매체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역동적이고 급속히 변화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내용의 변화가 있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희롱의 원인이나 가해자에 대한 인식도가 다른 항목의 인식도 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성희롱에 대한 반응은 Moon (2009)이 언급된 바와 같이 알고도 그냥 참는 등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거나 인관관계가 걸려 두려워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그러한 소극적 대처의 원인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성희롱을 당하면 수치심, 당혹스러움, 자존심손상,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 내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 있는 성희롱 상담소의 설치와 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성평등 의식 정도는 4점 만점에 3.1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성별, 지역, 학제, 전공, 학년, 용돈, 종교, 성관계 경험, 성표현물 접촉 경험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대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Kim & Kang, 2009; Yoo et al., 2012)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여자고등학교와 남녀공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평등이 높다는 보고(Kim, 2001)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때부터 남학생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남자대학생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전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성평등 의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4년제 대학이 교육연한이 더 길며 교양과목 등을 통해 성의식과 관련된 교과목을 접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성평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현실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Ahn, 2000)에서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평등과 같은 특성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거치면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되나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Kim과 Kim (1998)은 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의 여성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 안에서 평등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이 가톨릭을 제외한 불교나 개신교 학생들의 성평등 의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공에 있어서는 보건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성평등 의식이 높았는데 이는 의료보건계열에 여학생들이 많고 전공 학문이 전문직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성평등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 성평등 의식 수준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Yoo et al., 2012)에서는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군에서 과거에 이성교제를 하였거나 현재는 하지 않는 군보다 남녀 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표현물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가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았는데 이것은 성희롱 인식수준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접하게 되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평등 의식 수준이 교육생활 영역에서 가장 높았으나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Kim & Kang, 2009)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성별(여성)과 나이로 나타났고, 성평등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여성)과 성관계 경험여부로 나타났는데 여성인 경우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의식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성희롱과 성평등 피해 대상자가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인 경우와 성관계가 없는 경우 성평등 의식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성희롱인식과 성평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성희롱 인식과 성평등 의식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문화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 평등의식의 결여로 인하여 여성을 차별화하는 고정관념과 연결되어 성희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Moon, 2009)로 볼 때 대학생들에게 남녀 평등의식을 높이고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차후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수도권, 영남지역, 강원·중부지역, 호남지역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평등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성별, 지역, 군입대 경험, 전공, 학년, 용돈, 이성교제 경험, 성표현물 접촉경험 등의 항목에서 성희롱 인식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희롱 인식도는 성희롱 개념 인식도가 가장 높았으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 성평등 의식 정도는 성별, 지역, 학제, 전공, 학년, 용돈, 종교, 성관계 경험, 성표현물 접촉 경험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평등 의식에 대한 인식은 교육생활 영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성희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여성)과 나이였고, 성평등 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여성)과 성관계 경험여부였다. 성희롱과 성평등 의식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성희롱과 성평등 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상 학생들 중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이 많았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나 국내 대학생들의 성희롱과 성평등 의식 수준을 조사한 전국 규모의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파악된 대학생들의 성희롱과 성평등 의식수준 기초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의 예방대책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Fitzgerald, L. F. (1996). Sexual harassment: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 construct. In M. A. Paludi, *Sexual harassment on college campus: Abusing the Ivory Power* (2nd ed.).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Ha, H. S. (2007). Sexual harassment coping styl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785-800.
- Ha, H. S. (2010). Process analysis of negative emotion on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on campus: Focused on faculty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1), 25-43.
- Im, D. J. (1999). *A study on cog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Jung, H. M. (2003). The awareness and related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on sexual harassment. *The Korean Society*

-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7(2), 277-287.
- Kim, J. Y., & Ahn, C. S. (2000). A study on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6(3), 329-343.
- Kim, E. J. (2001).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sense of sexual equ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ejeon.
- Kim, M. H. (2005). *The effects of MBTI based self growth program on ego identity,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M. J., & Kim, H. O. (1998). Gender inequality by women spiritual leader of four major religions in Korea. *Journal of Gender Equality Studies*, 2, 269-304
- Kim, O. H. (2001). *An analysis of sexual harassment policies in public organization: A centering Northern Kyungbuk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 Kim, Y. H., & Jung, K. A. (1999).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KGES*,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im, Y. H., & Kang, H. W. (2009). Study of gender egalitarianism among Kyonggi University. *Journal of Citizen Humanities*, 16(1), 127-164.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1). *University statistics*. Retrieved, January 20, 2012, from <http://cesi.kedire.kr/index.jsp>
- Ko, Y. S. (2009). *A study o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wak, Y. C. (2007). *A study on sexual harassment policy in the milita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orea.
- Lee, E. W. (2005). *Impacts of the affective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college life adap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J. S. (2002). *A recognition of sexual harassment in the office according to source of vari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R., & Kim, M. J. (2009). A transition of health habits and self-rated health status of women aged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2), 199-206.
- Lee, S. K., Song, J. E., & Kim, S. (2011).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5(3), 170-176.
- Moon, H. K. (2009). *Effects of education program on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 Moon, E. O. (1997).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in Seoul.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14(2), 95-112.
- Park, K. J., Kim, D. W., & Kim, S. H. (2005).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6, 307-342.
- Park, S. H., Ha, H. S., & Kim, B. M. (2007). *Research on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 and activating strategies of preventive education in university (policy reports 2007-commission-14)*. Seoul: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Pyo, S. Y. (2008). *Educational law: Theory, Policy, Precedent*. Seoul: Bakyounsa.
- Son, H. G. (1992). *Ego identity formation and identity crisis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on, A., & Chun, S. (2005). Comparing sexual attitude, sexual initiation and sexual behavior by gender in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cience*, 18, 73-100.
- Yoo, M. S., Park, J. W., & You, M. A. (2012).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egalitarianism, sexual attitudes and sexual harassment myth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and Child Health*, 16(1), 14-22.